114회 정기대공연 조명팀 합평회 자료 및 인수인계서

연극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로 조명으로 참여하게 되어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조명의 아버지 56기 박종현 형의 도움 덕에 많은 일을 빠르게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조명설치와 조명 운반을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기본 용어

저도 조명에 대해 사전지식없이 극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명의 이름도 잘 모를 정도로 기본적인 조명의 용어도 아는게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 조명을 하시는 분들은 용어를 잘 알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 113회 대공연 합평회자료에 잘 나와있어 이를 옮겨 적습니다. 또한 제가 조명을 하면서 생각했던 자잘한 팁들을 같이 써넣었습니다.

• 대파: 케이스가 회색 금속형태 인 조명기입니다. 극회 공연에서 가장 많이 쓰는 조명이고, 젤라틴을 이용해서 다양한 색조명을 연출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색조명으로 사용하려면 설치 시 미리 젤라틴을 껴 놓고 올려야 합니다. 고장 난 대파가 많습니다.

• 엘립: 핀 조명입니다. 칼을 이용해서 확실한 선을 잡아 사각형 모양으로도 조명을 쏠 수 있고, 칼을 최대한 빼서 동그란 모양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로 쓰는 조명이고 색조명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대파보다 무겁고 섬세하니 조심해주세요.

• 오퍼: operation, 즉, 공연에 쓰이는 조명이나 음향 효과를 직접 켜고 끄는 일을 일컫습니다.

• 콘솔: 조명을 켜고 끄는 조작기를 말합니다. 상당히 무겁고 떨어뜨리면 안됩니다.

• 디머: 올리고 내리는 방식으로 조명을 조작하는 기기(버튼)입니다. 조명을 켜고 끄는방식에 컷과 딤이 있는데, 컷은 평범한 형광등을 켜는 것처럼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지연없이 켜지는 방식을 말하고, 딤은 페이드의 다른 말로서 서서히 켜지는 걸 말합니다. 조도는 0에서 10까지있고 1에서 5까지는 별로 차이가 없지만 그 이후부터는 숫자가 올라갈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 크로스: 1번 조명과 2번조명을 암전 없이 자연스럽게 교차시키는 걸 말합니다. 크로스를 할 때 손가락이 꼬일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조명 채널을 바꿔 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 채널: 대파나 엘립 같은 조명기기를 연결시키는 부분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콘솔에서 딤과 컷을 할 수 있습니다. 티비 채널처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ex) 1번 채널에 빨간색 색조명, 2번 채널에 핀 조명.

• 퓨즈: 채널과 콘솔의 전력 연결 상태를 일컫는 말 일겁니다. 퓨즈가 가끔 고장이나 조명 채널이 작동 안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동방에 있는 퓨즈 여분을 가져와서 교체해주시면 됩니다. 선배님들에게 조명 퓨즈를 가는 것을 도와달라고 여쭤보세요.

• 딸깍이: On/Off 버튼이 달려있으며 한 쪽 끝은 220V 플러그이고, 한 쪽 끝은 250V 암놈으로 되어있는 케이블입니다. 동방에서 간단히 조명기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 라인: 조명기기와 콘솔 사이에 연장 케이블 같은 개념입니다. 율전에서는 바를 타고 라인을 설치해야 조명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무겁습니다. 조명 운반 시 무게의 80퍼정도를 차지하는 친구입니다.

2. 조명플랜세우기

보통 조명은 대본이 나오고, 무대 팀의 구상이 끝나 무대가 나오면 그때부터 큐시트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팀보다 비교적 준비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위 사항이 완료되기까지 동방에서 사용가능한 대파와 엘립, 퍼넬 개수를 확인하시고, 다른 공구나 젤라틴등의 제반사항을 확인해주세요. 큐시트는 연출 님에게 피드백을 계속 받고 최종적으로 허락이 떨어져야 합니다. 무대를 설치하는 날 큐시트에 나온 조명을 설치한 후에 연출님과 에어리어를 잡고 최종 큐시트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이때, 너무 많이 바뀌어도 멘붕하지 마세요. 원래 그렇다고 합니다.) 이번 정기대공연은 준비기간이 비교적 짧아 조명설치까지 큐시트를 작업할 때도 급하게 하고 설치도 급하게 했지만 다음 공연에는 좀더 큐시트에 대해 미리 생각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 조명 설치와 오퍼

조명 설치는 보통 기획 님이나 선배님들이 조명 설치를 할 줄 아시는 선배님들을 불러 도와주시는게 보통입니다. 율전소극장은 바를 타야 합니다. 떨어지면 죽지만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도 조심합시다. 조명은 보통 테이프에 노끈을 묶어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지만 라인은 어깨에 걸치고 올라가야 하므로 조심하세요. 라인은 설치 후에 풀면서 내려와야 하니 미리 바를 타기 전에 꼬이지않게 정리해서 올라가주세요. 또한 율전에서는 에어리어를 정할 때 바를 탄 상태로 위에서 조명을 만지면서 조정하기 때문에 조심해주세요. 또한 위 작업들은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까 장갑을 끼고 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저는 율전오퍼를 봤는데 암전 시에는 암전 등이 필요합니다. 휴대폰플래시를 추천합니다. 오퍼 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고 큐시트에 만 충실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끔 캐스트들이 대사를 까먹을 때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명 오퍼도 꼬일 수 있기 때문이죠.

4.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싶은 내용이 더 많지만 다 담아내지 못해 아쉽습니다. 하지만 선배분들이나 같이 공연하는 공연진께 여쭈어 보면 어렵지않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같이 공연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준 모든 공연진 분들과 선배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